

국회 문 연다지만… 추경 처리 불투명

이번주 총리 시정연설 추진
한국당 끝장 투쟁 예고
예결위원장 한국당 봇
추경 심사 거부시 처리 불가
인사청문회는 참여키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6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6월 국회를 개회하고 당일 정부 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듣기 위해 한국당과 끝까지 협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추경이 시급하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며 대여 '끝장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만나 6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경제청문회 개최' 등 국회 정상화 조건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20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듣는 데 이어 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페스트트랙 법안 철회와 경제청문회 개최 등을 국회 등원 조건으로



오늘도 빈 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내걸고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20일 정부의 추경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을 본격 가동,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6월 임시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 한국당의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페스트트랙 파동 이후 복원된 여야 4당 공조가 힘이 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해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겠다. 상임위와 특위를 열어 추경과 민생경제 법안 처리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전날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공동으로 6월 임시국회를 소집 요구한 데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페스트트랙 폭격으로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뒤 이번에는 재정 포퓰리즘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이게

군소리 말고 통과시키라는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20대 국회 4년 차 예결위가 구성조차 되지 않은데다 예결위 위원장도 한국당 봇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거부하면 추경 심사는 '울스톱'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유지하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투트랙' 전략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검찰 개혁 적임자" vs "정치 보복용 코드 인사"

여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 지명 놓고 공방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두고 18일 여야는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위한 적임자라고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을 인사하며 공세를 펴부었다. 또 자유한국당 홍교안 대표는 이날 국정감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놓고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악연설이 불거진 데 대해 "누구와도 악연이 없다.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진행하고 집행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강력한

장이 되는 것이 두려운가"라며 "한국당은 '도둑이 제 빨 저린 것'이 아니라면 반대만 하지 말고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난 정권의 댓글 공작 사건 수사와 국정농단 특검까지 맡아온 윤 후보자의 이력을 볼 때 '정치 검찰'의 오명을 씻고 검찰을 개혁하는 데 부합하는 인사"라고 평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윤 후보자 지명은 청와대가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계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찰 내부에) 이 정권에 불만 있으면 웃고 나가라는 선언"이라며 "페스트트랙 폭격에 저항한 정치인을 정치 보복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주저앉히겠다는 계획마저 엿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6월 임시국회 복귀 문제와는 별도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참여하는 쪽으로 기각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역시 문제인 대통령의 윤 후보자 지명은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고 꼬집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칫 검찰이 정와대 입김에 더 크게 흔들리는 '코드 검찰'이 되는 것 아니라는 우려가 든다"며 "이런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하되 인사청문회가 실속 없는 정치 공세로 흐르지 않도록 후보자의 개혁성과 공정성 중심으로 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완도군 악산면 득암리 청정비단가 접 산 1377㎡ 분할가능 1억3천
- 화순군 남면 유마리 유마사 마을 1021㎡ 전망 좋음 48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주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영광 백수해안도 칠산비단 1130㎡ 1억2천

투자·매도·교환

- 향평 소불면 산남리 전 8588㎡ 귀농생활적합 2억6500
- 완도군 완도읍 망석리 도로접 산 자연녹지 3306㎡ 교환가능 8천만원
- 향평군 해보면 용천사 입구 땅 1537㎡ 건평 82㎡ 2억5천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대지 641㎡ 주택 있으나 주택신축적합 1억5백
- 광산구 삼암동 대령빌딩 중의 2층 25㎡ 광일점 전문점 시설연비 1억5천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 담양군 월산면 주월산 가는 길 평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 건물

- 순천시 낙안면 속마을 땅 2180㎡ 팬션3동 317㎡ 교환가능 8억
- 함평군 해보면 문장 땅 919㎡ 건평 1207㎡ 원룸 30. 지하공실 17억
- 농성동 새 원룸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가게는 공실 17억
- 충장로 4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25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 물건

- 강진 성전면 상업지 등 4240㎡ 강진산단근거리 소형아파트 적합 19억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3647㎡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33억
- 영광 염산면 바닷가 땅 3563㎡ 팬션2동·식당 건평 700㎡ 은행 39억 매도 6억5천
- 무안군 운남면 바다인접 약 9400㎡ 전원주택·요양시설 적합 3억5천
- 남평읍 드들강 모텔 땅 2741㎡ 건평 1748㎡ 요양시설 적합 17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신안군 암태면에서 7분거리 독립설 56233㎡ 독립생활적합 3억6천
- 담양군 무정면 땅 3850㎡ 별장 147㎡ 조경완벽 팬션좋음 7억2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전국 임야

- ▶ 바로 삽니다.
 - ▶ 지분물건 환영
 - ▶ 단, 맹지는 매입 불가
- 문의. 010-6834-7400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훑이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

평화당 "총선, 변화만이 살 길"

의원 8명 회동…제3지대 구축 등 공감대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18일 두 차례나 모임을 갖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다 적극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회동에는 유성엽 원내대표와 최경환 최고위원을 비롯, 박지원·천정배·장병완·이용주·김종희·장정숙 의원 등 8명이 참석했다. 정인화·윤영일 의원도 이날 회동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지역 구일정으로 불참했다.

이들은 이날 회동에서 이대로는 내년 총선을 치 수 없다는 데에 공감하고 정동영 대표 등이 친정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제3지대 구축 등 보다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주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정 대표의 당 운영이 점차 독단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

다. 이같은 흐름은 당내 2/3가 넘는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앞두고 당내 변화의 움직임이 구체화되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경환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에 앞서 '결집과 변화'가 민주평화당에 요구되는 사항"이라며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정동영 대표를 만나 당내 상황 및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속도감 있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민주평화당이 살아야 정 대표는 물론 호남 정치의 미래가 있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 대표는 당내 의원들과 모든 일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 26일 인사청문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경우 의원은 18일 민주당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 간 협의 결과와 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국세청장 청문회만 '원포인트'로 하기로 했다"며 "다른 안건들의 경우 모두 국회 정상화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들어올 것 같아 얘기해 그런 점들을 고려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기라운지

“대북 지원, 양파 등 풍작 농산물 함께 보내야”

무소속 손금주 의원

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달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대북 식량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18일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 쌀 뿐만 아니라 보리·양파·마늘 등 풍작 농산물들을 함께 보내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날 "날씨와 재배면적 증가 영향으로 양파·보리·마늘 등 풍작 농산물을 포함시키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을 해결하고 우리 농민들의 산지 농산물 가격도 안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마 풍작 농산물을 대북 식량지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을 해결하고 우리 농민들의 산지 농산물 가격도 안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